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노 현 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신 희 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성관계 내의 상호역동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상대방 효과를 중심으로 구조모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도의 현재 이성 교제 중인 성인 미혼 남녀 129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한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모두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에 정적 영향을 미쳐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기침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기침묵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남녀 모두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자기효과를 나타냈고,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에도 부적 영향을 미쳐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을 매개로 하여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남녀 모두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을 매개로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을 매개로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상담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을 덧붙였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이성관계만족도,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APIM

* 본 연구는 노현주(2021)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 031-219-2747, E-mail : hcshin@ajo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수용받고,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려는 인간의 욕구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동기체계이다(Baumeister & Leary, 1995). 애착 욕구를 바탕으로 타인과 맺는 관계에는 가족, 부부, 친구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이성관계는 다른 대인관계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 중 하나로 생애 초기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초기 중요한 타인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이민선, 2017). 또한 이성관계는 성인 초기 주요 발달 과업으로써 친밀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Erikson, 1963). 특히 초기 성인기 이성 교제는 이성관계를 진지하게 탐색하여 개인의 긍정적 자아의 성장에 나아가 성인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하며(이한나, 2019), 후기 성인기의 이성 교제로 이어져 자신의 배우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Uoyd & Cate, 1985). 이렇듯 이성 교제 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성관계만족도는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관적 평가로서 기대, 행복함, 친밀감 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Sanderson & Cantor, 1995). 이러한 만족도에 따라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도 달라지며(Braithwaite, Delevi & Fincham, 2010), 긍정적인 이성관계를 경험할 때 자기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박가현, 2021). 이성관계에서 개인의 만족감 경험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행복이 증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수연, 2010; Cramer, 2004), 불만족감 경험은 공허감과 고립감을 느껴 부정적

적응을 보일 수 있다(홍대식, 1998; Sullivan, 1953). 이성관계는 상대방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관계로, 각 개인이 가진 특성은 상대의 반응을 지각함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관계의 만족감, 불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백경숙, 박주현, 2015; Reis & Shaver, 1988), 갈등의 다양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송슬기, 박경, 2013). 즉, 자신과 연인의 개인적 특성과 상호작용방식에 따라 이성관계만족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관계를 이루고 있는 남성과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며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며, 정체감 발달 시 남성은 분리, 여성은 관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Gilligan, 1982; Rubin, 1983). 이에 따라, 분리 맥락에서 발달한 남성은 독립성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 맥락에서 발달한 여성은 타인과의 애착과 관심을 중요시하게 된다(곽소영, 2008). 이런 점을 살펴보았을 때, 이성관계만족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남성이 여성보다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을 더 높게 지각하여(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관계만족도도 남자의 평균이 여자보다 더 높았다(연수진, 2013). 반면, 이성관계만족에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있으므로, 이성관계만족의 성차와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 및 상호작용방식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관계와 같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거부당하는 경험을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 거부민감성이란, 중요한 타인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경험

한 거부 경험으로 인해 이후의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거부에 대한 불안한 기대를 갖고 거부를 지각하여 과잉반응하게 되는 인지-정서적 과정이다(Downey & Feldman, 1994). 거부에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립적인 행동에도 거부 행동으로 부호화하여, 분노, 불안, 질투 등과 같은 과잉반응이 유발된다. 이에 따라 자신을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자기감정을 숨기는 철수, 회피, 적대감을 표출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 타인에게 거부반응을 이끌고, 자신에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거부를 재경험하게 되는 것이 반복될 수 있다(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개인의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일으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며(류혜라, 2011; Ayduk, Downey, & Kim, 2001),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적응적 조절 실패로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박유림, 2022). 거부민감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대처방식을 선택하거나,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최하나, 2019; Christman, 2012). 이는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Schobi, Perrez & Bradbury(2012)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성관계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불만족을 경험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거리 두기, 철수 등의 행동은 이성관계 불만족감에 영향을 주었다(Schaan, Schulz, Schächinger & Vögele, 2020).

상대와 거리두고 철수하는 상호작용 중 하나인 자기침묵은 친밀한 상호작용과 관계 유지를 위해 개인의 감정, 생각 및 행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Jack과 Dill(1992)은 자기침묵을 개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타인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여 자기 생각과 행동을 억

제하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자기침묵하는 개인은 상대방의 요구를 우선시하여 외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관계 내 자기상실감을 경험한다(Jack, 1991; Jack & Dill, 1992). 이러한 개인의 자기침묵은 잠시 동안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실제로 Harper와 Welsh (2007)의 연구에서 자기침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질을 더 낮게 평가했으며, 갈등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이후 다시 갈등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보였다(Clark, 2014).

거부민감성은 거부단서를 지각하며 느낀 것에 부적응적 반응으로 자기침묵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Ayduk, May, Downey와 Higgins (2003)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이 자기 침묵 한다고 하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처럼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작용을 위협적으로 느껴 문제 해결의 기회로 여기기보다는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본다(Downey & Feldman, 1996). 이들이 불편한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며 이를 억제하려는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이해림, 안명희, 2021). 이렇듯 자기 표현을 억제하는 자기침묵은 이성관계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다. 이성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꽤 중요하다. 이성관계에서 정서 표현은 강한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깊은 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며(박가현, 2021), 긍정적 정서표현은 긍정적 관계의 느낌이 들게 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준다(곽지혜, 2016). 그러나 자기침묵은 자유롭게 정서표현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얻는 걸 어렵게 하여, 결국 친밀한 관계인 이성관계 및 부부관계에서 한 개인이 여러 어려움과 불만족을 경험하기 쉽게 한다(전현덕, 2016; Ben-Ari & Lavee, 2011; Gross & John, 2003).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거부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사고 등을 상대방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원하지 않은 거부나 사회적 배척은 소속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를 방해하여, 방어적, 공격적 대처 행동을 유발시킨다(이민선, 2017). 거부에 민감한 개인은 거부로 인식된 경험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고, 상대방을 실망시키거나 화나지 않게 하려 정서 경험에 대한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Ayduk et al., 2003).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적절히 이해 할 수 없게 하며, 자기노출도 감소시켜 관계 속 심리적 불안과 긴장을 유발한다(나예은, 2020). 이를 통해, 관계 내에서 일어난 불안과 긴장감은 이성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이성관계에서 상대방의 거부 단서를 포착했을 때 불안을 느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억제하는 의사소통방식을 선택하게 되며, 더 나아가 자기침묵을 통해 이성관계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선행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 등 이성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의 거부민감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들이 관계에서 애착과 친밀감을 갖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박은경, 선혜연 2018). 또한, 자기침묵의 초기 연구는 여성의 우울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기에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사회적 양식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후속연구들에서 남성들에게도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졌다(Jack, 1999). 그러나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 둘 다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함께 존재하며(박희경, 2011; 박명주, 2012; 김지영, 2015; McGrath, Keita, Strickland, & Russo, 1990) 각 변인의 성차에 대해서 혼재된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갖고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성별과 개인적 특성, 행동에 따라 이성관계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성관계만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이성관계의 역동을 살펴보고자 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서 오히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침묵을 하게되어 이성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쳤고(이세나, 2019), 거부민감성이 인지적 정서조절 과정과 갈등해결전략을 거쳐 이성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은영, 김미경, 202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커플의 한 쪽만을 측정하는 단편적 형태로 분석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다(정지은, 손은정, 2016). 즉, 성차와 상대방에게 받은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속 개인의 측정치에는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상대방의 점수도 혼합되어 있어 이들 자료는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Kashy & Kenny, 2000).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인 특성과 행동이 자신 뿐 아니라 상대의 관계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Feeney, 2002). 실제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 상황을 겪었을 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Ayduk, Gyurak, & Luerssen, 2008),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호 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임정하, 최정원, 2019). 이성관계는 자신과 상대방의 개인 내적인 특성과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사회적 장면이나 대화, 상대방을 회피하는 회피행동을 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거리두는 것으로 지각하게 하여 이에 맞추어 상대방도 자기 침묵 행동을 하거나 거리두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연숙, 홍혜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회피하여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할 가능성을 떨어뜨렸고, 손성은, 박원주(2021)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침묵을 사용하여 결혼관계만족도를 낮추는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상호 영향을 주는 이성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상대방 또한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중국에는 양쪽의 관계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연구의 전통적인 방법들에서는 관찰치들 간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어 연인과 같이 비독립적인 통계치를 분석에 사용할 경우, 유의성 검증에 편향을 가져와 1종 오류나 2종 오류가 증가 될 수 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지에 대한 정보를 놓치게 된다(Cook & Kenny, 2005). 그러므로 짝 자료 분석은 상호의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 쌍이 분석의 단위가 되어 자료를 수집하며(Kenny, 1995), 쌍방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델(APIM)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의 상호작용의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상대방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커플의 거부민감성이 자신과 상대방의 자기침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2. 커플의 자기침묵이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3. 커플의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이성 교제 중인 미혼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도에 있는 대학 커뮤니티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연구 홍보물을 게시하였으며 홍보물에 제시된 설문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는 커플(쌍) 자료를 수집하는데에 용이한 온

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홍보게시글에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총 145쌍의 설문지 중 거부민감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는 점과 이성관계 초기는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계 낙관성으로 인해 부정 정서가 덜 표현될 수 있다(백상은, 설경옥, 2021)는 점을 근거로, 한달 미만의 교제기간을 가진 사례들은 삭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결측값이 있는 응답, 한쪽만 참여한 응답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29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만 25.39세(SD=4.5)였으며, 남자는 26.14세(SD=4.9), 여자는 평균 24.78세(SD=4.1)였다. 교제기간은 6개월 미만 28쌍(21.7%), 6개월~1년 19쌍(14.3%), 1년~2년 31쌍(24.0%), 2년 이상 52쌍(40.0%)이었다.

측정 도구

거부민감성 척도(RSQ)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하고 이복동(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거부민감성척도(RS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에 대해 염려 혹은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등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18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각 상황마다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 정도인 ‘거부불안’과 반대로 그 요구를 상대방이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인 ‘수용기대’에 대해 묻는 문항이 짝지어져 있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이며,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로 평정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의 수준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거부민감성 점수는 거부불안 점수와 수용기대 점수를 곱한 값을 18로 나누어 계산하며, 거부불안 문항의 경우 모두 정문항이며, 수용기대 문항은 모두 역문항이므로 곱연산 시 역산하여 사용하게 된다. 별도의 하위요인은 존재하지 않는 단일요인 척도이며,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83이었고,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자기침묵 척도(STSS)

Jack과 Dill(1992)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양지운(2006)이 번안한 자기침묵 척도(STSS)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를 통해 평정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침묵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외적인 자기지각’은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정도를,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정도를, ‘자기침묵’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고자 자신의 욕구와 자기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분열된 자기’는 내적으로는 분노를 경험하고 있으나 겉으로는 순응하며 자신의 의견을 숨길 필요가 있다고 믿는 신념에 대한 경향을 측정한다. Jack과 Dill(1992)은 하위척도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의 1번, 11번 문항이 역 채점되도록 의도했지만, 1번 문항과 11번 문항의 문항 총 상관인 0 또는 부적 상관을 보이기에 이 문항들의 사용 시 상관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또한 두 문항들의 상관을 확인하였고, 1번 문항은 $r=.131$, 11번 문항은 $r=.057$ 로 상

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에서 제외해, 총 29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Jack과 Dill의 연구(1992)에서 .94로 나타났으며, 양지윤(2006)의 연구에서는 .75, 본 연구는 .87이었다.

이성관계만족도 척도

권정혜, 채규만(1999)의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유소영(2000)이 이성 교제에 적합하게 부분 수정하고, 이를 이복동(2000)이 요인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때 만족도가 감소하나, 연구 해석상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선행연구에서와 같이(이주원, 2015;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하위요인을 '만족'으로 재명명하고 점수를 역코딩하여 불만족도가 아닌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를 통해 평정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뤄져 있다. '전반적 만족'은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정서적 의사소통'은 이성 파트너의 애정이나 지지,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이해와 공감을.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연인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 여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의논 여부를, '공유시간 만족'은 연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다.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값은 .84였고, 본 연구는 .9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AMOS 22.0,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의 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커플의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이 이성관계만족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검증하였다. 먼저 AMOS 22.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기반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하고, 각 연구변인 간 직접 및 간접 경로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고, 등가제약을 통해 경로 간 효과크기의 상대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매개변인의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Mplus 7.0을 통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행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각 성별에 대한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이성관계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남성의 거부민감성은 자신의 자기침묵($r=.52,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성관계만족도($r=-.53,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성이 거부민감성이 높을 때 자기침묵을 하며, 이성관계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남성의 자기침묵은 상대방인 여성의 이성관계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r=-.29, p<.01$), 이것은 남성이 자기침묵 행동을 하면, 상대방인 여성의 이성관계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의 거부민감성은 자신의 자기침묵($r=.56,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성관계만족도($r=-.51, p<.01$)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성이 거부민감성이 높을 때 자기침묵을 하며, 이성관계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여성의 자기침묵은 상대방인 남성의 이성관계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r=-.30, p<.01$). 즉, 여성이 자기침묵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인 남성의 이성관계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9요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 때, 거부민감성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문항 꾸러미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각 문항을 요인 부하량의 절대 값에 따라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과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을 함께 묶어 순서대로 3개의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이와 같은 문항꾸러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문항 꾸러미들 간에 공통분산의 비율이 높아져 신뢰도가 증가된다. 또한, Likert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은 개별 문항 보다 연속형 자료에 더 가까워져 정규성 가정을 더 잘 만족하게 된다. 이 밖에도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개수가 줄어들어 통계적인 추정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Bandalos, 2002).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각각의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1. 남성의 거부민감성	1					
2. 남성의 자기침묵	.523**	1				
3. 남성의 이성관계만족도	-.534**	-.423**	1			
4. 여성의 거부민감성	.294**	.113	-.443**	1		
5. 여성의 자기침묵	.168	.196*	-.295**	.556**	1	
6. 여성의 이성관계만족도	-.294**	-.289**	.614**	-.514**	-.617**	1
평균	8.02	2.92	3.91	8.27	2.81	3.74
표준편차	3.83	0.50	0.64	3.87	0.60	0.66

주. * $p<.05$, ** $p<.01$

측도 사이에서 자기침묵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94)=298.834$, $N=129$, $CFI=.949$, $TLI=.939$, $RMSEA=.065$ 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모형 검증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남성과 여성의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1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표 2). 모형의 적합도는 자료가 적합함을 보여주었고(홍세희, 2000), 남성과 여성의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에 주는 자기효과는 위에서 검증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거부민감성의 자기효과를 비교하였다. 비교하고자 하는 값들을 같은 수치로 지정하여 같다고 가정한 모형을 등가 제약모형이라고 하며, 이를 기본모형과 비교하였다. χ^2 차이검증을 통해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미할 경우 등가제약을 가한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의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a=a'$), 이들 자기효과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거부민감성은 자기침묵에 비슷한 자기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침묵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남성과 여성의 자기침묵이 이성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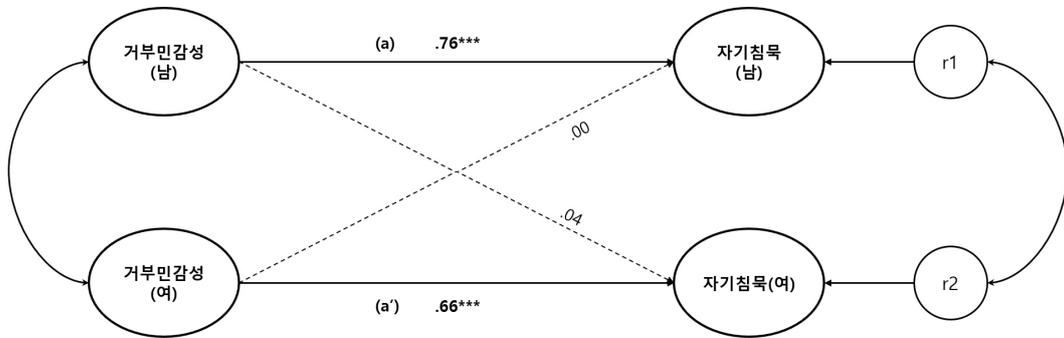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주.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표 2.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등가제약

Model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1	107.414	71	.952	.939	.063	
등가제약1-1($a=a'$)	107.521	72	.953	.941	.062	$\chi^2(1)=0.107,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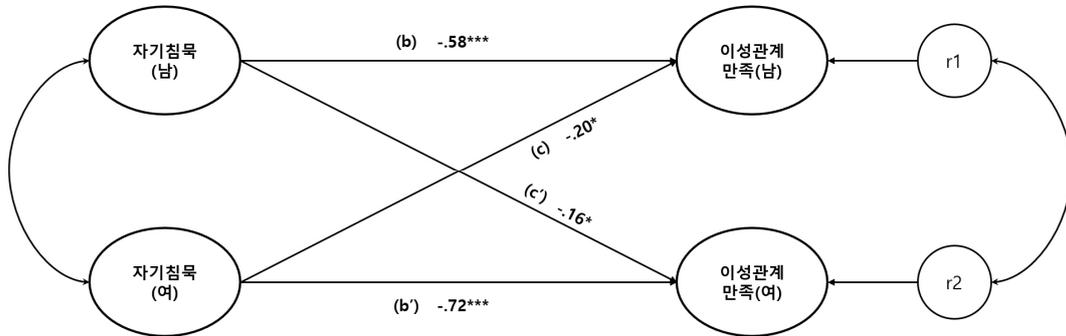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주. * $p < .05$,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표 3.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등가제약

Model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2	153.801	98	.963	.955	.067	
등가제약2-1($b=b'$)	154.588	99	.963	.956	.066	$\chi^2(1)=0.787, p>.05$
등가제약2-2($b=c'$)	175.160	99	.950	.939	.078	$\chi^2(1)=21.359, p<.001$
등가제약2-3($b'=c'$)	169.174	99	.954	.944	.074	$\chi^2(1)=15.373, p<.001$
등가제약2-4($b'=c$)	195.887	99	.936	.923	.087	$\chi^2(1)=42.086, p<.001$
등가제약2-5($b=c$)	161.906	99	.959	.950	.070	$\chi^2(1)=8.105, p<.01$
등가제약2-6($c'=c$)	153.802	99	.964	.956	.066	$\chi^2(1)=0.001, p>.05$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2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표 3). 모형의 적합도는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주었고, 남성의 자기침묵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기침묵이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2에서는 총 6번의 등가제약이 이루어졌다. (1) 남성과 여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비교($b=b'$), (2) 남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상대방의 이성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비교($b=c'$), (3) 여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남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비교($b'=c'$), (4) 여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비교($b'=c$), (5) 남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여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비교($b=c$), (6) 남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여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를 비교($c'=c$)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간 ($b=b'$)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자기침묵은 이성관계만족도에 비슷한 자기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b=c'$), χ^2 의 차이값은 자유도 1에 21.359로 $P<.001$ 수준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beta=-.58$)가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beta=-.16$)보다 유의미하게 더 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남성의 자기침묵은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상대방 효과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여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남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χ^2 차이검정으로 비교해본 결과($b'=c'$), $P<.001$ 수준에서 여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beta=-.72$)가 남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beta=-.16$)보다 더 컸다. 즉, 여성의 자기침묵의 자기효과가 남성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여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χ^2 차이검정으로 비교해본 결과($b'=c$), $P<.001$ 수준에서 여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beta=-.72$)가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beta=-.20$)보다 더 컸다. 즉, 여성의 자기침묵의 자기효과

가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섯째, 남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여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b=c$), χ^2 의 차이값은 자유도 1에 8.105로 $P<.01$ 수준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beta=-.58$)가 여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beta=-.20$)보다 유의미하게 더 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남성의 자기침묵의 자기효과가 여성의 자기침묵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여성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c'=c$), 두 효과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자기침묵은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을 매개로하여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이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3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3(그림 3)은 χ^2 ($df=200$)=311.584, $N=129$, $CFI=.946$, $TLI=.937$, $RMSEA=.066$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또한, 연구모형3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표 4)을 통해 확인한 결과, 커플의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을 매개로 해서 자기와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모든 효과는 유의미했다. 거부민감성(남) → 자기침묵(남) → 이성관계만족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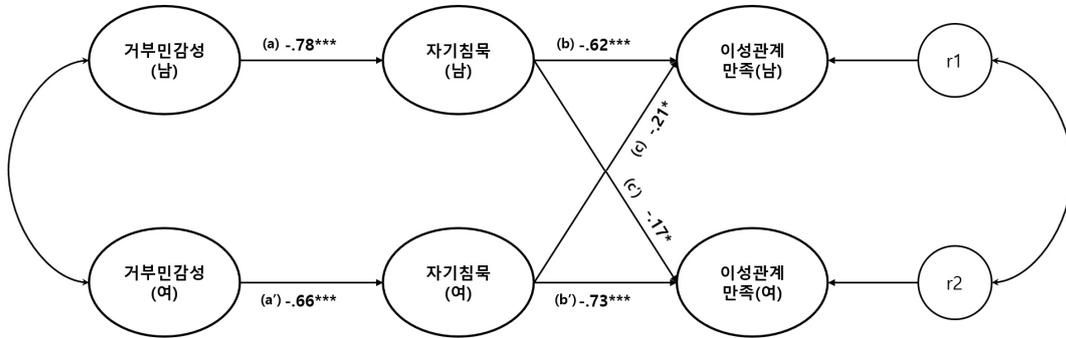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3

주. * $p < .05$,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표 4. 부트스트랩을 통한 경로와 효과크기

Path	Estimate	S.E.	95% CI	
			low 2.5%	upper 2.5%
거부민감성(남) → 자기침묵(남) → 이성관계만족도(남)	-.091***	0.02	-0.140	-0.058
거부민감성(남) → 자기침묵(남) → 이성관계만족도(여)	-.093***	0.017	-0.127	-0.060
거부민감성(여) → 자기침묵(여) → 이성관계만족도(여)	-.027*	0.013	-0.055	-0.003
거부민감성(여) → 자기침묵(여) → 이성관계만족도(남)	-.028*	0.011	-0.051	-0.008

주. * $p < .05$, *** $p < .001$

표 5.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등가제약

Model	χ^2	df	CFI	TLI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3	311.584	200	.946	.937	.066	
등가제약3-1($c'=c$)	311.612	201	.946	.938	.066	$\chi^2(1)=0.028, p > .05$

의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BC(-.140, -.058)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했다. 거부민감성(남) → 자기침묵(남) → 이성관계만족도(여)의 경로 역시 95% 신뢰구간에서 BC(-.127, -.060)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했다. 거부민감성(여) → 자기침묵(여) → 이성관계만족도(여)의 경로와 거부민감성(여) → 자기침묵

(여) → 이성관계만족도(남)의 경로도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을 매개로 자기와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연구모형3에서 남성의 자기침묵이 여성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자기침묵이 남성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 등가제약을 통해 확인하였다($c'=c$). 분석결과, 이들 상대방효과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자기침묵은 이성관계만족도에 비슷한 상대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침묵의 매개효과와 동시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거부민감성과 자신의 자기침묵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정적 상관을 예측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진선, 2009; 이민선, 2017; 이세나, 2019). 또한 여성과 남성의 자기침묵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신의 자기침묵과 이성관계만족에 대한 부적 상관을 예측한 연구들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양지윤, 2006; 이민선, 2017; 이세나, 2019; 이은희, 2012). 자신의 자기침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송이(2019)의 연구에서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커플의 거부민감성이 자신과 상대방의 자기침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커플의 거부민감성은 자신의 자기침묵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대방의 자기침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자기침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거부 불안을 느껴 이에 대한 과잉반응과 대처 방식으로 내현적 방식의 대처 행동인 자기침묵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owney & Feldman, 1996). 즉,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불편감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정서표현을 억제한다는 것이다(김용희, 2012). 반면, 남성과 여성의 거부민감성이 상대방의 자기침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거부에 민감한 개인의 경우 스스로 거부에 대해 불안해 자동적으로 과잉반응이 일어나 먼저 자기침묵을 하게 되면, 자기 표현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같은 침묵행동이 유발되지 않아 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커플의 정서는 상호교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Levenson, Haase, Bloch, Holley, & Seider, 2015) 개인의 정서, 사고, 행동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부분이 관계 내에서 드러나면, 이를 지각한 상대방에게도 정서, 사고, 행동이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불안을 느끼고 과잉반응을 하여 자기침묵이라는 행동변인이 상대에게 드러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커플이 자신의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에 대한 자기보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

에 대해 평정하고 이를 공유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커플의 자기침묵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침묵을 많이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침묵을 많이 할 경우, 대인관계만족과 친밀감을 낮게 느끼게 하며(Hart & Thompson, 1996), 대인관계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김지영, 2015)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언어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효과는 있었으나 상대방효과는 거의 없었던 연구결과(김민선, 2009)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기침묵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사고와 감정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으나 내면적으로는 분노를 갖게 되어 분열된 자기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상실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질은 낮아지고, 자신과 상대방의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침묵의 자기효과는 남성과 여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남녀의 자기침묵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비슷한 자기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자기침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김명화, 홍혜영, 2011; Nolen-Hoeksema, 1990)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타인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볼 때, 한국사회는 개인이 중요한 것 보다 상호간의 관계와 조화, 협력이 중시되는 문화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다(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이러한 관계지향적 집단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남성과 여성들의 경우, 관계지향적 성격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김소정, 2014).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신념을 드러내어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수용과 지지를 받는 것을 우선적 가치로 두어 자기침묵과 이성관계만족도의 자기효과간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더불어, 자기침묵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유의미하게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방식이 상대방보다 자신의 관계만족과 더 큰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박영화, 고재홍, 2005). 이를 통해 커플간의 의사소통방식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과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타인의 감정, 사고에 따른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 사고에 대한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관계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스스로가 자신이 한 경험에 따른 정서, 생각 등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남성과 여성의 거부민감성이 자신의 자기침묵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 자기침묵을 하게 되어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만족도를 낮추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같은 자기효과는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이민선(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타인

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개방을 솔직하게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억제시키며 회색하게 되고(Ayduk et al., 2003), 결국 이성관계에서 불만족을 경험하기 쉬워지는 것이다(전현덕, 2016). 이를 해석해보면, 상대방에게 거부로 인식된 경험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고 수동-회피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솔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이성관계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효과 경우, 거부민감성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이끌고 이성관계의 친밀감을 낮춘다는 결과들(성정아, 홍혜영, 2014)과 유사한 결과이다. 거부에 민감한 사람은 관계상황에서 중립적인 단서에도 불안과 같은 과잉반응이 나타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며 연인을 실망시키지 않고자 자신을 희생한다. 이에 따라 신뢰감에 문제를 일으켜 의미 있는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친밀한 대인관계를 해치게 된다(류혜라, 2011). 이 때문에 자신의 거부민감성이 높아 자신이 경험한 감정과 사고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침묵을 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의 친밀감을 모두 떨어뜨려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을 통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남성과 여성간의 효과크기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아시아 문화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갈등상황에서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하며(Cheng, 2010), 남성이 자기침묵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는 연구결과(김진선, 2009)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 둘다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 스스로 자

기침묵을 많이 하여 상대의 이성관계만족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양상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Jack(1991)에 따르면 자기가 속한 문화적인 기준에 따라 자기의 욕구보다 상대방의 요구를 우선시함으로써 관계에서의 갈등과 손실을 피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표현 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자기침묵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남성은 양육 과정에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남성상에 적합하도록 훈육되며 힘들거나 분노를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암묵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정서표현이나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박소현, 2011). 따라서, 거부에 민감한 남성은 작은 단서에도 거부를 인식하고, 자동적으로 자기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상대 여성은 관계에서 소통이 단절된 느낌이 들어 이성관계만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여성의 경우 사회에서 상냥하고 순종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성 고정관념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Jack & Ali, 2010). 연구의 평균연령이 20대 중-후반으로 1990년대 후반 출생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전통적 성역할을 벗어나려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남성, 여성의 사회화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는 최근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2030세대 남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강인함에 가치를 두는 전통적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으며(한유정, 2022) 여대생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춰 거절과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이혜림, 한유진, 2021).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화과정에 따른 대인관계 내 친밀감 유지의 의무속에서, 거부 단서에 대한 지각과 불안으로 자기침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에서 자기 상실을 경험해 진정한 친밀감을 얻기 어려워지고(이은희, 2012). 상대방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 낮은 관계만족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다루어지던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 이성관계만족도를 커플자료를 통해 검증하였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커플 내에서 이루어지는 쌍방의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상담에서 이성관계를 논할 때, 내담자가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까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이성관계를 주제로 한 상담에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성관계의 파트너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을 피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 이러한 자기침묵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침묵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고, 진실된 관계를 맺기 어려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도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기침묵에 수반되는 개인의 희생과 관계의 악화에 대해 내담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적응적인 대처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내담자가 자기침묵이라는 대처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관해 살펴 보면서 거부단서를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지를 알아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상호작용에서 중립적인 단서에도 거부단서로 받아들여 위협적으로 느끼고, 불안과 분노와 같은 과잉반응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관계를 유지하고자 자기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개인의 경우 관계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이 연인과의 의사소통 및 거부반응을 과잉 해석한 결과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중요한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거부당한 경험으로 인해 생성되어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부정적 내적 표상이 있더라도, 새롭고 좋은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 내적 표상을 재구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홍다겸, 2014).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공감과 지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진실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거부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내담자가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돕는다면, 현재 이성관계에서 자신과 연인 또한 친밀감을 갖고,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 수는 129쌍이며, 서울, 경기 지역의 성인 남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분포를 볼 때 20대가 80% 이상을 차지 한다. 30대 커플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20대보다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성관계의 양상이 20대와는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30대 미혼 남녀의 이성 교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고, 결혼만족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30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더불어, 교제기간은 6개월 미만인 21.7%, 2년 이상이 40%로 다소 치우친 분포임을 볼 수 있다. 커플의 교제기간이 의사소통방식과 관계만족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결과에 따라(백상은, 설경옥, 2021) 교제기간이 자기침묵과 이성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으로 진행되어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면접이나 사례연구를 통한 보다 객관적이고 풍성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 중 자기침묵은 하위요인들 간의 큰 설명량 차를 보인다. 특히 남성의 자기침묵의 하위요인 중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과 ‘자기침묵’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경로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표준화했을 때 각각의 변인들이 다른 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 수치를 통해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금 더 설명량이 높은 척도를 사용해 절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경로효과크기 비교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라는 사회문화적 요소 즉, 자기 욕구를 억제하고 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믿음과 사회적 분

위기가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표현 억제를 촉진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각 변인의 하위요인과 같은 통제변인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자기침묵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에서 여성은 ‘분열된 자기’, 남성은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김소정, 2014; 정신아, 2013). 즉, 자기침묵이라는 행위 자체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동기나 구체적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성차에 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 자기침묵이라는 대처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적대적 행동이라는 상반된 대처방식에 관해서 살펴보지 못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중 거부 단서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외현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은영, 김미경 (2020).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갈등해결전략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2), 181-198.
- 곽소영 (2008).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곽지혜 (2016). 불안애착이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명화, 홍혜영 (2011). 자기침묵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69-97.
- 김민선 (2009).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구-철회 의사소통패턴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정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분노억압간의 관계: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 (2012).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9), 231-256.
- 김지영 (2015).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수치심, 자기침묵 행동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선 (2009).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자기침묵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2(2), 1-21.
- 나예은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혜라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가현 (2021). 초기 성인기의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주 (2012). 자기긍정확인이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의 대인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현 (2011). 성인애착, 역기능적 완벽주의, 정서억제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유림 (2022).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3), 745-764.
- 박은경, 선혜연 (2018). 거부민감성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735-754.
-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 박주현 (2015). 가족 건강성, 이성교제 만족도 및 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학, 20(3), 503-524.
- 백상은, 설경옥 (2021). 성인애착과 관계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정 정서 및 행동 표출의 매개효과와 교제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5(2), 57-73.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4.

- 손성은, 박원주 (2021). 거부민감성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2(1), 659-674
- 송슬기, 박경 (2013).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영향에 관한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3(2), 63-86.
-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애착과 대인관계: 여대생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47-363.
- 양지윤 (2006). 애착 유형, 자존감, 자기침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수진 (2013).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2012). 이차원적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 양상의 관계: 투자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87-101.
- 유소영 (2000). 사랑 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 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 (2017).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침묵의 이중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2010). 대학생의 행복 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107-122.
- 이세나 (2019).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12). 자기침묵과 정서표현양가성이 결혼만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원 (2015). 미혼 남녀의 원가족 경험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하나 (2019). 성인의 긍정적·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 안명희 (202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연인관계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345-365.
- 이혜림, 한유진 (2021).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22(1), 454-460.
- 임정하, 최정원 (2019).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26(3), 51-69.
- 전현덕 (2016). 초기 성인기 여성의 애착 차원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송이 (2019). 미혼 남녀 커플의 정서조절능력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정신아 (2013). 거절민감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은, 손은정. (2016).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이성관계만족도 사이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의 매개역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 연구*, 17(5), 399-420.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 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연숙,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4), 295-311.
- 최하나 (201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사회과학논총*, 22(1), 23-60.
- 한유정 (2022).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학회*, 30(2), 101-161.
- 홍다겸 (2014). 거부민감성향 청소년의 내적표상 재구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7-177.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 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 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n-Ari, A., & Lavee, Y. (201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imate relationships: A shift from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o dyadic attribut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2), 277-284.
- Braithwaite, S. R., Delevi, R., & Fincham, F.D. (2010).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s*, 17(1), 1-12.
- Cheng, C. C. (2010). A study of inter-cultural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4), 354-362.
- Christman, J. A. (2012). Examining the interplay of rejection sensitivity, self-compassion, and communic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Retrieved from
http://trace.tennessee.edu/utk_graddiss/1282
- Clark, J. L. (2014). Mindful silence: Mindfulness i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the negative outcomes of self-silencing. American University. 3-82.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ramer, D. (2004). Emotional support, conflict,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a romantic partner. *The Journal of psychology, 138*(6), 532-542.
- Downey, G., & Feldman, S.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231-147.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 1327-1343.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eney, J. A. (2002). Attachment, marital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diary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9*(1), 39-55.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rper, M. S., & Welsh, D. P. (2007). Keeping quiet: Self-silencing and its association with relational and individual functioning among adolescent romantic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1), 99-116.
- Hart, B. I., & Thompson, J. M. (1996). Gender role characteristic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4), 407-426.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 D. C. (1999). Silencing the self: Inner dialogues and outer realities. In T. Joiner & J. C. Coyne (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pp. 221-24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ack, D. C., & Ali, A. (2010). *Silencing the self across cultures: Depression and gender in the soci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 Kashy, D. A., & Kenny, D. A. (2000).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In H. Reis & C. M. Judd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pp. 451-47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 (1995). The effect of

- nonindependence on significance testing in dyadic research. *Personal Relationships*, 2, 67-75.
- Levenson, R. W., Haase, C. M., Bloch, L., Holley, S. R., & Seider, B. J. (2015). Emotion regulation in couple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267-28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Ed.), *Interpersonal Rejection* (pp.251-2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Grath, E. E., Keita, G. P. E., Strickland, B. R., & Russo, N. F. E. (1990). Women and depression: Risk factors and treatment issues: Final report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National Task Force on Women an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olen-Hoeksema, S. (1990).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 Duck, D. F. Hay, S. E. Hobfoll, W. Ickes, & B. M. Montgomery (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Rubin, L. B. (1983). *Intimate strangers: Men and women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 Sanderson, C. A., & Cantor, N. (1995). The Association of Intimacy Goals and Marital Satisfaction: A Test of Four Mediational Hypothe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2), 1567-1577.
- Schaan, V. K., Schulz, A. M., Schächinger, H., & Vögele, C. (2020). Effects of rejection intens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social approach behavior in women. *PLoS ONE*, 15(1).
- Schobi, D., Perrez, M., & Bradbury, T. N. (2012). Expectancy effects on marital interaction: Rejection sensitivity as a critical moderat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5), 709-718.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Norton.
- U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 179-194.

원고접수일 : 2022. 10. 24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1. 30

게재결정일 : 2022. 12. 13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esting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Hyunju Roh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adu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pre-marital couples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advice. Survey data from 129 Korean couples was collected. For data analysis, we used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 analysis metho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ver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both men and women, rejection sensi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self-silencing, but not on their partner's self-silencing. Both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elf-silencing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in the negative direction across genders. Rejection sensitivit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own and their partner's relationship satisfaction through self-silenc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jection sensitivity increases self-silencing of individuals and that self-silencing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adult couples.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self-silencing,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ctor-Partner effect, APIM